

# 오늘의 성실로 내일을 개척하는 본회 윤 주 성 이사

농업은 인간성의 보고이다. 전체인구에 대한 농업인구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것이, 내뻘지고만 있는 우리네의 인심과 비례하는 듯이 느껴진다.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농업인 전체를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쉽다. 본회 윤주성 이사는 평생을 양돈에 몸 바쳐 왔으며, 양돈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중에 한명이다. 영세하고 무지했던 한국의 양돈을 새로이 일깨우기 위해 앞장서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양돈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지금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어쩌면 고집스럽기도 한 우리의 양돈가가 바로 그다.



어릴적부터 양돈을 보면서 자란 그가 처음 직접 양돈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그는 4H회원으로서 양돈과제를 선택·이수하였고, 군복역 후인 74년 8월에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업과견 연수생으로써 미국 켄사스주에서 양돈전공 부문을 2년간 수료하였다.

그후 1977년에 미국에 출국하기전 약혼식을 올렸던 현 소옥순 여사와 더불어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그 당시로는 처음으로 손수 초현대식 분만틀을 만들고, 이유실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전기목책기를 이용해 방목을 하고, 슬러리 스타일로 돈사를 만드는 등 우리나라 양돈이 아직 전 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1970년대 말 선구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젊음을 재산으로, 한국양돈을 이끌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손수 수작업으로 시설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요구당하기도 했다.

그는 귀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양돈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쉽고, 편한 양돈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다짐하고, 우리나라의 양돈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 주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는 그 이후에도 84년에는 덴마크와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덴마크 파견 농업연수생으로 4개월간 덴마크를 다녀오고, UR을 맞이해서는 자가비용을 들여 유럽의 양돈을 둘러보고 오는 등 여덟번에 걸쳐 외국의 선진양돈을 보고 배워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83년 청소년 육성공로로 장관상을 받는 등 2번에 걸친 장관상과 많은 기타 상과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 80년대 초 36살의 젊은 초대 지부장

윤주성 현 본회이사는 협회내에서도 양돈협회가 창립될 때부터 함께 해 오면서 1982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익산지부를 창립한 장본인으로 초대 지부장(그 당시에서는 무척 드문 일이었던 36살의 젊은 지부장이었다)을 지냈으며, 5년전인

93년에는 전북 도협의회장을 지냈다. 그는 전라북도 양돈협회의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주성 이사는 덴마크 양돈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가 덴마크에서 돌아오는 즉시 농장의 돼지를 모두 처분하고, 덴마크에서 종돈을 12마리 수입하여 세심한 관리와 노력으로 현재의 종돈장에 이르고 있었다. 그는 덴마크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이 비슷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네의 양돈도 연구와 개발을 중요시해 덴마크에 버금가는 축산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의 양돈경력에는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처음으로 77년 농장을 세우고 돼지를 늘려가는 중 79년 양돈과동을 겪었고, 83년과 4년 과동때에도 그 타격을 많이 받아 부인 소옥순 여사와 함께 모진 고통을 견디어 내기도 했다.

7년전 익산에서 지금 있는 곳으로 농장을 옮겨 왔으며, 지금은 종돈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비육돈을 키워 볼 생각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 스스로 양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사랑하게 만들어

한편으로 그는 부인 소옥순 여사와 2명의 아



▲부인 소옥순 여사의 손을 꼬옥 잡은 모습에서 부인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진다.



▲본인이 특별히 만든 방목돈사. 임신돈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적을 좋게 한다.

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두 아들을 모두 양돈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연암축산원에전 문대학에 보내기도 했다. "억지로 양돈을 이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고, 시야를 제시해 주었다. 비록 지금은 쉽진 않지만, 양돈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므로써 스스로 양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윤주성 이사는 이야기하며, '농업을 하는 사람답게 따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착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다'는 말을 덧붙혔다.

또한 윤주성 이사 자신의 많은 사회활동으로 농장일의 70~80%를 부인 소옥순 여사가 맡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안해 했다. 정부자금을 받아 편한 양돈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양돈을 하는 자신에게 불평하지 않고 따라줘 오늘의 자신이 있는데에 부인의 노고가 컸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아쉬웠던 점은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 직책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겸손해 하며, 능력이 큰 좋은 인재가 많이 협회에 들어와 협회의 위상을 높히기를 바랬다. 윤 이사는 "우리는 일한 만큼 인정받는다. 다만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많은 노력을 할때 진정으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의 신념을 이야기 한다. <취재 : 조진현> **養豚**